테마칼럼 | 여성세계 | 정치프리즘 | 정치의 눈 | 문화 향기

'파리'의 공원묘지

지 건 길
〈동아대학교 교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오래 전, 내가 '파리'에 살면서 혹은 지방에 머물면서도 '파리'에 올라올 때면 간혹 찾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곳의 공원묘지였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의 크고 작은 도시나 시골의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공원'묘지는 흔히 우리가 연상하는 어둡고 음습한 '공동묘지'가 아니었다. 사시사철 화사한 꽃이 화분이나 꽃병에 꽂혀 있고 양지 바른 곳에 어린 손주를 데리고 나와 밝은 색 벤치에 앉아 독서삼매경에 빠진 할머니의 모습이 다정스레 다가오곤 했었다.

이제 갓 만들어진 듯한 자그마한 무덤의 판석 위에 얹힌 해맑은 웃음 띤 어린 소녀의 사진과 함께 도자기에 새겨진 묘지(墓誌) -미쳐 못다 핀 꽃다운 나이로 떠나간 '소피', 여기에 고이 잠들다-의 사연이 보는 이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또 백수(百壽) 가까이 해로한 듯한 노부부의 무덤 앞에서는 가신 이들의 긴 삶을 마음속으로 축하하기도 했었다.

> 우리에게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에 종사했던 분들을 위한 공원묘지가 따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역사의 공원'

'파리'에는 시내의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공원묘지가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는 시내의 동편에 만들어진 '페르 라셰즈'가 있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각각 '몽파르나스'와 '몽마르트르' 공원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시골의 공원묘지에서는 이름 없이 돌아가신 이들의 애틋한 사연을 느끼게 되지만 '파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으로만 들어왔던 각 분야의 명사(名士)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공원묘지 입구에서 동전 한 두개로 묘지의 안내 지도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지도에 그려진 약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그들의 무덤을 만날 수가 있다. 물론 그 이름들의 내력을 다소라도 알게 되면 그 감흥은 훨씬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귀에 익은 이름만 열거해도 '페르 라셰즈'에 묻힌 로시니, 쇼팽, 비제, 마리아 칼라스, 에디트 피아프 등 음악인이 있고 화가로는 제리코, 코로, 드라클루아, 모딜리아니 등이 여기에 묻혀 있다. 이 밖에 문인 작가로서 알퐁스 도데, 발작, 몰리에르, 아폴리네르와 함께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로서 말년에 프랑스로 건너와 불우한 삶을 살다가 객사한 오스카 와일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독한 언어학의 천재 샹폴리옹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다.

한편 '몽마르트르'에는 드가, 밀레, 베를리오즈, 에밀 졸라, 알렉산더 뒤마, 하이네 등이, '몽파르나스'에는 조각가 부르델과 함께 보들레르, 기 드 모파상이 안치되어 누군가에 의해 항상 싱싱한 꽃들이 바쳐지고 있다. 20세기 프랑스 지성을 대표하면서 평생을 계약결혼으로 마친 사르트르와 마담 보부아르도 이곳 '몽파르나스'에 함께 묻혀 이를 대하는 이들에게 또다른 감회를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

이렇듯 파리의 공원묘지는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각계의 유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의 공원'이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음악사이면서 미술사이고, 동시에 문학사이면서 사상사인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다소 혐오시설로서 여겨져 오는 공원묘지가 이곳에서는 모두가 즐겨 찾는 공원시설로서 활용되고 있는 '묘지문화'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공원묘지'의 문화

우리의 주변에서도 근년에 들어 과거의 을씨년스런 괴기영화의 소재로나 등장했던 '공동묘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원묘지'의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또 국가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 등 몇 군데에 국립묘지가 있고 이곳 광주에도 망월동 국립묘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대부분 순국선열 등 정치,사회적 사유에 의한 국가유공자들이 안치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에 종사했던 분들을 위한 공원묘지가 따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묻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큰 영예로 여겨질 것이고 먼 훗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훌륭한 '산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기 노 석

의학도 들이여, 힘든 진료과목 기피말라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자그마한 개인병원을 열어 진료를 시작한 게 흉부외과라는 간판을 내세울까 말까 하고 고민하던 게 바로 어제의 일 같은데, 무심한 세월은 저만치 멀어져 있다.

지난 17일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근무했던 직원 30여명을 초청해 조촐한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모두가 옛 추억에 잠겨 잠시나마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나니 개업 초기 어려웠던 시절도 떠오르는 듯 했다.

흉부외과와 인연을 맺은 지 어언 26년. 엄청난 수술 스케일과 방대한 의학지식, 생명을 직접 다룬다는 자부심과 함께 가장 발전한 최첨단과학을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평생을 같이하기로 결정했다. 내 정서와 코드에도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나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기가 막힌 사연들도 참으로 많았다. 수련의·전공의 시절이야 어느 누구에게도 서럽고 힘들지라도 막상 전문의를 따고나자 갈 자리가 없었다.

어렵사리 85년에 남광종합병원(현 서남대학병원)에 흉부외과를 새로 설립하기로 결정 했는데, 이번에는 의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스승·선배로 수성된 8명의 이사를 찾아가 설득해 난관을 해결해야했다.

이듬해 우여곡절을 거쳐 개원한 후로는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 지금은 그래도 흉부외과가 어느정도 알려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생소한 분야였다. 과의 성격을 알기는커녕, 존재 여부를 모르는 이가 태반이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내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제 앞서가는 이들보다 뒤에오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 졌다.

요즘엔 'GNI'(국민총소득)가 올라가고 생활수준도 향상되며 어려운 일은 '3D' 업종으로 취급해 기피하는 경향이 커졌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흉부외과를 포함한 외과계열 및 저출산에 따른 수입이 저하된 과는 회피 현상이 심하다. 심지어 지원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과 전문의의 고난도 의료행위가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 적절한 보상을 못 받는 이유도 있다. 숙련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교육 및 수련기간을 거치는데, 막상 수입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쳐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물론 매사에 쉽게 가려는 젊은 의학도들의 자세에도 문제는 있다

개인적으로야 의료사고 많고 수입이 없는 과는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라도 먼 훗날의 국민보건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흉부외과 의사로 지내온 지난 20년이 행복했다. 어려웠었기에 더욱 열심히 했고 소중한 인연의 귀함도 알게 됐다.

뒤에 오는 이들이여, 특히 진로를 결정하려는 이들이여, 성공이나 행복이란 결코 많고 적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리운 정을 나눌수 있느냐에 있다. 정을 나눌수 있는 마음도 고려대상에 넣어줬으면 한다.

〈기노석 흉부외과 원장〉

기 고

나 훈

지역농업 지방 자치단체가 지켜야

우리 농업이 갈수록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추진은 감당키 어려운 농업개방을 강요하고 있고, 표류하던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 협상도 '예비초안'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아 많은 투자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함으로써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을 제대로 팔지 못해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화 물결에 맞게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업의 기반 확충과 첨단농업 육성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화 되는 것에 비하면 속도나 규모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이 지역농업을 육성해 보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 보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범국가적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려보자고 하는데 지역농업이 예산문제로 다른 산업에 자꾸 밀려 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도시민의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농협은 농업과 농촌 살리기에 팔을 걷었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과 농촌이 농업인에게 국한된 삶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전국민적인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역농업이 진부한데서 벗어나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지역농업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을 책임지고 육성하다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지역특성에 가장 잘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지역농업발전에 필요한 좋은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마저 자체예산이 없어 배정된 예산을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발생되면 어려운 농민들은 끊임없이 질타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광산구의 농업관련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단의 예산 확보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2007년 새해부터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늘리고 아낌없는 투자로 지역농업을 육성했으면 한다.

WTO와 FTA의 무역협정을 뚫고 나갈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으면 한다.

〈송정농협 조합장〉

시 실

'빈사상태' 전남농업 방치해선 안된다

전남의 농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지면적과 작물생산량은 전국 최고지만 농가소득은 연 2천700만원으로 전국 평균 3천100만원에 크게 못미쳤고 농가부채비율은 13.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이다. 농업은 전남 산업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농가인구가 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고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경쟁력이 낮아 대외개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에서 희망을 잃으면 농촌은 붕괴된다. 전남의 농촌은 초고령사회다. 전남 농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34.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구 3명중 1명이 노인인 것이다. 노인들이 농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농업은 회생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농업의 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은 시간 문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미국산 농산물이 밀물처럼 몰려오게 된다. 농업기반이 붕괴되기 전에 농업을 살려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전남 농업의 해결책으로 적극적 농업구조조정과 품질 및 마케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전업농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전면 도입, 직거래망 확충,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다. 당국은 영농의욕을 북돋우고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와 농민이 힘을 합치면 전남 농업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서남권 투자촉진추진단' 발족 기대 크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추진할 전담기구인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이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해안 지역을 '환서해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추진단의 역할과 임무는 서남권 종합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막중하다. 추진단은 우선 내년 5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와 투자규모 결정, 재원대책 마련 등을 담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내년 안에 개발절차와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차별 투자 계획수립, 국가재정운영계획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안은 미진한 점이 많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안돼 벌써 '졸속 발표'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추진단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안에 특별법 제정과 민자유치 방안 등을 마련해 서남권 종합발전안의 구체화 작업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지자체, 민간파견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추진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있도록 지원은 물론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국토개발균형차원에서 이뤄지는 21세기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추진단은 사명감을 갖고 서남권종합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쌓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추진단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無等鼓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A River Runs Through It, 1992)의 영상은 매혹적이다. 배경이 된 미국 몬타나 협곡의 아름다움은 되레 가슴을 저리게 한다. 그 강물에 던지는 기다란 낚싯줄의 느릿함도 처연하다.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dford) 감독은 플라이 낚시를 통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는다.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는 노먼과 폴에게 송어 낚시를 가르친다. 고지식한 형과 자유분방한 동생. 다른 성격을 지닌 두 형제는 교수와 기자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어느 날 폴이 갑작스럽게 숨지고…〉

늙은 노먼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영화의 끝자락은 그러나 허허롭다. 모두가 떠난 뒤, 말 없는 물살의 흐름엔 세월의 무상함이 짙게 깔려 있다. 세밑에서, 이 영화가 다시금 생각나는 까닭도 그 때문일 게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됐다. 신년의 굳은 다짐도 어느새 잊혀졌다. 이룬 것은 하나도 없는 듯하다. 그 자괴심으로 지난 1년을 반추하는 일은 괴롭다. 하릴없이 보낸 시간을 메울 힘도 없다. 막막함과 답답함과 허무함이 전부다. 내년도 새로울 게 없어 보인다.

하여, 또 한해가 오는 것이 싫다. '새해 반대전선'(Fonacon)이란 단체가 31일 프랑스 낭트(Nantes)에서 "새해를 맞지 말고 저항하자"며 시위를 벌이는 것도 그런 속내이리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이고 싶을 때가 있지 / 가끔은 낮고 그늘진 곳으로 / 내려서고 싶을 때가 있을 터이지 / 가슴 아래께가 서늘해지는 산그늘에 서서 / 붉어지는 노을을 끝없이 바라보다 / 그 불꽃 이글거리는 속으로 / 몸을 던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터이지…〉

마지막 달력을 뜯어내며 시 한 구절을 떠올린다. 한해가 저무는 날, 시인 나종영도 혹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잠 못 이루고 번민했던 것은 아닐까?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출·퇴근길 버스안 라디오 소리에 손님들 짜증

회사 주변의 주차난과 출·퇴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아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인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방송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운전기사가 채널선택권을 가진데다 음질이 나쁘거나 승객을 생각 하지 않는 음량, 광고방송으로 인해 라디오 소리가 그야말로 소음일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아침 출근시간은 물론이고 오후시간대도 마찬가지로 그 소음은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되고만다.

출근 시간은 하루를 설계하는 차분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시내버스에서 이처럼 시달리고 나면 차라리 라디오를 틀지 않았으면 낫지 않을까 싶다.

버스회사측에서는 버스서비스 향상차원에서라도 승객들의 이같은 불편 해소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박성만·광주시 동구 운림동

회사·관공서 이면지 활용할때 뒷면 주의해야

회사나 관공서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관공서는 업무 특성상 전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관리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때 신중히 이뤄져야 하고 선택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때로 회사 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면지 활용으로 된 종이를 사용한다.

이때 뒷면에 본인과 상관없는 입찰내역서나 물품구입요구서·급여·명세서 등이 기재된 경우가 있다. 사실 이면지를 활용해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본의 아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자원절약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지만 이런 절약정신의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 편집부 2200-629 / 정치부 2200-616 / 경제부 2200-617 / 사회1부 2200-618 / 〈FAX 222-4267〉 / 사회2부 2200-619 / 〈FAX 227-0118〉 / 문화생활부 2200-626 / 여론매체부 2200-628 / 체육팀 2200-627 / 사진부 2200-690 /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 〈FAX 222-8005〉 / 광고국 2200-521 / 〈FAX 227-9500〉 / 디자인 2200-536 / 사업2부 2200-552 / 문화사업국 2200-541 / 〈FAX 222-0195〉 / 판매부 2200-551 / 〈FA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